건기식부터 사우나 체험까지… 업종 넘나드는 일상케어 경쟁

K-웰니스 '열풍'

올리브영, '올리브베러 성수점' 공개
중소 브랜드 입점해 생태계 구축

아모레퍼시픽 '슈퍼레티놀 젤리'
한미약품, 건기식 '에피슬림' 개발

외국인, 헬스케어 영역 소비 다양화

올리브베러 성수점 조감도. /CJ올리브영

뷰티, 제약, 유통 산업 간의 경계가 무너지며 건강과 휴식을 일상적으로 관리하는 'K웰니스'가 소비 시장의 핵심 축으로 부상하고 있다. 화장품을 바르거나 영양제를 섭취하는 수준에서 업종을 넘나드는 융합 비즈니스 경쟁이다.

29일 국내 뷰티 업계에 다르면 글로벌 K뷰티 유통사 CJ올리브영은 웰니스 대중화에 박차를 가한다. 올리브영은 웰니스 전용 매장 '올리브베러'를 5호점까지 확장했다. 지난 1월 올리브베러 광화문점을 처음 선보였고 이달 30일 서울 성수에서 '올리브베러 성수점'을 공개한다.

올리브베러 성수점은 지하 1층부터 지상 3층까지 총 4개 층, 영업면적 185평 규모로 역대 올리브베러 매장 중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한다. 올리브영은 젊은 소비자층과 외국인 관광객이 모여드는 성수 상권의 특성을 적극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9개월간 축적한 올리브베러 고객 데이터와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다소 생소했던 웰니스를 '즐겁고 지속 가능한 일상 루틴'으로 구체화하는 데 중점을 둔다.

실제로 이번 성수점은 오감 체험형 공간을 갖췄다. '베러 바'는 자신만의 건강한 식습관을 형성하도록 돕는다. 섭취 방식이 익숙하지 않은 웰니스 식품을 맞춤형 메뉴로 제공한다. 저당·제로·비건 간식을 모은 '스위츠 라이브러리', 입욕 및 바디케어를 위해 '사우나'를 주제로 꾸며진 구역도 운영한다.

아울러 올리브영은 유망 중소 웰니스 브랜드를 입점시켜 소비자와 연결함으로써 동반 성장하는 K웰니스 생태계를 구축한다는 복안이다.

유통 거점의 확장과 함께 K뷰티 대표 주자인 아모레퍼시픽 역시 일상 속 이너뷰티를 제안한다. 건강식품 브랜드 바이탈뷰티에서 '먹는 레티놀' 제품군을 내놓는다. 신제품 '슈퍼레티놀 젤리'는 30년 레티놀 연구 기술을 바탕으로 개발되어 1포당 레티놀 1000㎍과 히알루론산·뮤신·세라마이드·알로에겔 등을 함유한다. 독자 기술력을 집약해 젤리 제형에 레티놀 등 유효성분을 처방한 것이 특징이다.

유통가와 뷰티 업계가 공격적으로 이끌고 있는 웰니스 유행에 합류한 제약사들은 자사의 전문성을 이식하며 약국, 피부과 등 전문 채널을 공략한다.

한미약품은 첫 국산 비만약 '에페'를 발매한 데 이어 체중 관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신체 고민을 고려한 건강기능식품 '에피슬림'을 개발했다.

에피슬림은 근력 개선을 돕는 '에피슬림 머슬', 지구력과 활력을 보충하는 '에피슬림 부스트', 피부 보습을 케어하는 '에피슬림 스킨' 등 총 3종으로 구성됐다. 3종 모두 국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인정한 체지방 감소 기능성 원료와 위장관 건강 부원료 3종을 활용했다. 전문적인 복약지도가 가능한 약국에 공급되어 소비자가 약사 상담 후 구매를 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이러한 K웰니스는 국내를 넘어 한국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의 라이프스타일 소비마저 K뷰티에서 K웰니스로 구조적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

국내 인바운드 관광 플랫폼 크리에이트립이 발표한 2026년 1~9월 예약 데이터 분석에 따르면, 외국인 이용객 7명 중 1명(약 15%)은 최근 2년간 2회 이상 한국을 다시 찾은 재방문객으로 집계된 가운데, 재방문 시 쇼핑 상품은 다변화하고 있다. 영어권 관광객은 두피케어 등 '헤어' 카테고리 재예약률(10%)이 가장 높았고, 홍콩 관광객은 K푸드를 중심으로 한 미식(14%)에 이어 헤어, 피부과, K뷰티 등을 주로 다시 찾았다.

크리에이트립 관계자는 "K팝에서 시작한 한국인 라이프스타일 열풍은 K뷰티 흥행을 이끈 바 있고 현재는 헤어, 피부과 등 헬스케어 영역에서 방한 외국인이 '단골 여행자'로 등장해 웰니스는 핵심 관광 요소가 될 것을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이청하 기자

mlee236@metroseoul.co.kr

SK바사, '美 1310억 지원' 백신 개발 참여

콩고민주공화국서 확산 중인
분디부교 바이러스 감염증 대응
백신 공정 확장, 대량 생산 주도

SK바이오사이언스가 미국 정부의 지원을 바탕으로 글로벌 파트너들과 신종 팬데믹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백신 개발 및 생산에 나선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글로벌 비영리 바이오메디컬 연구기관인 국제에이즈백신추진본부(IAVI) 및 힐레만 연구소 등과 함께 미국 보건복지부(HHS) 산하 전략대비대응청(ASPR)의 생물의약품첨단연구개발국(BARDA)이 최대 9900만 달러(약 1310억 원)를 지원하는 프로젝트에 참여한다고 29일 밝혔다. 이 중 확정된 초기 지원금은 3600만 달러(약 477억원)다.

이번 프로젝트는 최근 아프리카 콩고민주공화국(DRC)을 중심으로 확산 중인 분디부교 바이러스(BDBV) 감염증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ASPR/BARDA의 지원금은 임상 1상을 포함한 임상·규제 활동과 대유행 대응 백신 생산, 보건 안보를 위한 공급에 투입될 예정이다.

10월 25일 기준 누적 확진 1만60명, 사망 4887명을 기록한 콩고민주공화국의 에볼라 유행은 역대 두 번째로 규모가 크며, 역대 최대 규모로 기록될 가능성이 높다. 현재 BDBV에 특화된 백신이나 전용 치료제가 없는 상황이어서 프로젝트 참여 기관들은 1회 접종만으로 신속한 면역 형성을 유도하는 백신을 개발하고 안정적인 글로벌 공급 체계를 구축한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각 기관은 분야별 전문 역량을 결합한다. IAVI는 전체 프로그램을 총괄하며 임상 개발, 미국 FDA 등 규제기관 대응 및 대유행 대비 전략을 주도한다. 힐레만 연구소는 차세대 제조 공정을 적용한 초기 임상용 백신 생산과 기술 이전을 담당한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백신의 공정 확장(Scale-up)과 대량 생산을 주도한다. 특히 자회사인 독일 위탁개발생산(CDMO) 전문기업 IDT 바이오로지카(이하 IDT)의 제조 역량을 결합해 생산 기반을 강화할 계획이다. IDT는 백신 제조 분야에서 축적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충전 및 완제 공정을 맡아 무균 충전부터 최종 제품 생산까지 수행한다.

참여 기관들은 이미 세계보건기구(WHO) 사전적격성평가(PQ)를 통해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된 자이르 에볼라(Zaire ebolavirus) 백신과 동일한 재조합 수포성 구내염 바이러스(rVSV) 플랫폼 기술을 기반으로 개발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안재용 SK바이오사이언스 사장은 "감염병 위협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백신 개발과 생산 기반을 지속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프로젝트 참여는 SK바이오사이언스와 IDT의 연계 역량이 글로벌 시장에서 인정받은 성과로, 글로벌 파트너들과 긴밀히 협력해 백신의 신속한 개발과 안정적인 공급망을 구축함으로써 글로벌 감염병 대응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이세경 기자 seilee@

"미세침 형태로 히알루론산 흡수 더 깊게"

한국콜마 '히알루론산 파우더' 개발

K뷰티 업계가 화장품 유효성분 전달력을 높이기 위해 활용하는 '스피큘(미세침)' 기술이 고도화되고 있다. 특히 스피큘 화장품의 피부 자극과 세안 번거로움을 해결하는 데 중점을 둔다. 한국콜마는 피부에 바르면 따가움 없이 스며드는 신개념 가루 제형을 국내 최초로 구현해 K뷰티 약물전달기술(DDS)을 한 단계 끌어올렸다.

한국콜마는 보습 성분인 히알루론산을 스피큘 형태의 미세 가루로 만든 '히알루론산 파우더' 제형 개발에 성공하고 관련 기술 특허를 획득했다고 29일 밝혔다. 히알루론산이 파우더 형태의 뾰족한 결정을 갖춘 것은 처음이다.

기존 스피큘은 바닷속 해면동물에서 추출한 천연 미세 침이다. 피부 표면에 미세한 자극을 주면서 유효성분의 흡수를 돕는다. 바르는 순간 느껴지는 따끔한 사용감이 효능에 대한 기대로 이어지며 큰 인기를 끌었으나, 물에 녹지 않는 단단한 불용성 소재 특성상 피부 자극 부담이 크고 사용 후 반드시 씻어내야 한다.

한국콜마는 4년여에 걸친 집중 연구 끝에 히알루론산 입자를 단단한 결정으로 굳힌 뒤 250마이크로미터 크기의 뾰족한 가루 형태로 다듬는 특수 공법을 개발했다. 이 제형은 스피큘과 마찬가지로 뾰족한 결정이 피부 표면에 닿아 성분 흡수를 촉진하지만, 수분에 쉽게 녹는 히알루론산 고유의 성질 덕분에 피부에 닿아 문지르면 녹는다.

특히 유효성분이 피부 속에서 서서히 방출되는 원리를 통해 보습 효과가 오래 유지된다. 실험 결과, 일반 크림 대비 보습 지속력이 최대 62% 높은 것으로 입증됐다. /이청하 기자

제약바이오協, 빅파마·투자자 직접 연결

'이스트-웨스트 바이오파마 서밋'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글로벌 빅파마 및 대형 벤처캐피털과 직접 기술이전과 투자 유치를 협력하는 글로벌 딜메이킹 무대가 2년 연속 서울에서 열린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가 주최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국내 유망 바이오텍들의 글로벌 영토 확장을 진두지휘한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오는 2027년 3월 15~17일 서울 콘래드 호텔에서 열리는 제6회 '이스트-웨스트 바이오파마 서밋(East-West Biopharma Summit)'의 지역 주최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29일 킥오프 회의를 시작으로 주최위원회를 공식 출범했다고 밝혔다.

이스트-웨스트 바이오파마 서밋은 바이오 투자 행사로, 아시아(이스트) 유망 제약바이오 기업과 미국·유럽 등 서구(웨스트) 글로벌 제약사, 투자자를 직접 연결한다. 특히 본 행사가 2026년에 이어 2027년까지 2년 연속 서울에서 개최함으로써 K제약·바이오의 높아진 글로벌 위상을 증명한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성공적인 행사 개최를 통해 국내 기업들의 실질적 성과를 창출한다는 방침이다. 지역 주최위원회에는 국내 제약바이오 생태계를 대표하는 기업 및 기관 14곳이 대거 합류했다.

29일 서울 방배동에 위치한 한국제약바이오협회에서 고상백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왼쪽부터), 노연홍 한국제약바이오협회장, 바이오센추리의 조쉬 벌린 기업 제휴 및 사업 개발 총괄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주요 산업 현안으로는 아시아 혁신 신약개발 및 기술이전 전략, 유망 파이프라인 투자 등을 다룬다. /이청하 기자

패션그룹형지, 전국에 겨울상품 공급 확대

800여개 로드숍에 F/W 상품 배치

패션그룹형지가 최근 급격한 기온 하강으로 방한 의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전국 대리점에 겨울 신상품 물량을 집중 공급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갑작스러운 한파로 매장을 찾는 소비자가 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물량 부족을 방지하고 대리점의 원활한 영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공급 대상은 크로커다일레이디, 샤트렌, 올리비아하슬러 등 패션그룹형지의 여성복 브랜드를 운영하는 전국 800여 개 로드숍이다.

패션그룹형지는 체감온도가 크게 떨어진 기상 변화에 맞춰 경량 다운부터 헤비다운, 방풍 아우터, 울 코트 등 F/W 주요 상품을 매장에 집중 배치했다. 특히 방한 의류를 찾는 고객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매장 입고 주기를 앞당겼다.

패션그룹형지 크로커다일레이디 매장에 진열된 2026년 겨울 신상품 아우터 라인업. /패션그룹형지

이를 통해 전국 대리점의 주요 상품 재고 부족으로 인한 판매 기회 손실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회사 측은 이번 조치로 고물가와 경기 침체로 위축된 골목상권 및 대리점의 안정적인 매출 확보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김서현 기자 seoh@